

Sulfur compound removal from solvent extracts of low rank coals김인백^{1,2}, 이광복¹, 고창현¹, 박종호¹, 범희태¹, 박성렬¹,정태성¹, 김성현², 김종남^{1,*}¹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²고려대학교

(jnkim@kier.re.kr*)

최근 유가는 불안정하게 변동하여 에너지 수급의 위기가 현실화 되었으며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확보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매장량이 석유에 비하여 풍부한 석탄을 이용한 에너지 기술개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중에서 저급석탄에서 회분을 200ppm 이하로 제거한 초청정석탄을 생산하는 연구가 한국,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다. 초청정석탄은 석탄발전소에서 혼소되어 오염물질의 배출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으며 가스터빈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어 질 수도 있다. 가스터빈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식을 일으키는 황화합물을 제거해야 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석탄을 유기용매와 반응하여 탄소성분만이 포함된 추출탄을 만들고 이 추출한 석탄의 황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해 개질축매에 물과 과산화수소 그리고 알콜류 제2의 용매를 도입하여 황화합물의 구조를 변경시키고 탈황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었다. 또한 황화합물이 제거된 추출탄은 발열량과 수분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실험결과에 기반하여 탈황공정을 실제 추출공정에 도입할 경우, 운전상에 추가적인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아, 저유황 초청정석탄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